

윤병태 시장, 지역경제 활성화 '젠걸음'

수도권 에너지저장장치 업체 나주 투자 유치 제안

美LA 한인타운 농산물 수출 판촉 행사 사전 미팅

윤병태 나주시장이 에너지신산업 분야 기업 투자 유치와 농산물 수출 판로 확보를 위한 수도권 발흥 행정을 펼쳐 주목받고 있다.

나주시는 15일 "윤병태 시장은 최근 KT X용산역 광주·전남 비즈니스룸에서 김홍철 ㈜코리드에너지 대표를 만나 지역 산업 단지 투자 유치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경기 김포시에 분사 공장을 둔 ㈜코리드에너지는 차세대 에너지저장장치로 각광받는 '바나듐 레독스 플로우 전지'(VRFB·Vanadium Redox Flow Battery)를 개발·생산하는 업체다.

윤 시장은 한국전력 분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등 에너지신산업 산·학·연·관 클러스터 조성 이점에 기반한 나주시 투자 여건과 행정적 지원을 김 대표에게 적극 어필하며 기업 투자 유치를 제안했다.

김 대표는 한전을 중심으로 에너지신

산업 분야 연관 기업 생태계 기반을 구축 중인 나주시 투자 여건에 큰 관심과 함께 투자 유치 관련 지속적인 협의 의사를 나타냈다.

이어 서울시청으로 이동한 윤 시장은 황병국 미주상공회의소 총회장과 한국 방문단 일행을 만나 미국 LA 한인타운에서 개최 예정인 '나주시 우수 농수산물 수출 판촉행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사전미팅을 가졌다.

윤 시장은 오는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미국 LA 한인타운 내 서울국제공원에서 한인축제와 연계 개최하는 수출 판촉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사전 미팅을 통해 나주배, 김치 등 지역 농산물, 가공식품의 홍보·판촉과 나주시 에너지신산업 전력기자재 업체의 수출 판로 확보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최근 황병국 미주상공회의소 총회장과 한국 방문단 일행을 만나 미국 LA 한인타운에서 개최 예정인 '나주시 우수 농수산물 수출 판촉행사'의 성공 추진을 위한 사전 미팅을 가졌다. (나주시제공)

윤병태 시장은 "기업 매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따른 기업 규모 확장, 투자 유치 활성화라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대미 수출 길 확보를 위한 미주상공회의소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황병국 회장은 전량 수입을 조건으로 나주시역에 1만평 이상 '호접난' 수출단지 개발을 윤 시장에게 제안했다. 이어 황 회장은 내년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에서 개최 예정인 제2회 세계한상대회에 윤 시

장을 초청, 나주시역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수출과 글로벌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에 적극적 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수도권 방문 일정을 마친 윤 시장은 "나주의 에너지신산업 기반 구축과 지역 경제·고용 활성화를 위한 우수 기업 투자 유치 발품을 아끼지 않겠다"며 "미국 LA 한인타운 농산물 판촉행사가 지역 농특산물 판로 확대와 농가 소득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준환 기자

올바른 방향으로 통합 행정을

취재수첩



정 해 선 (지역특집부 국장)

모든 일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요즘 목포시의 일부 행정이 시민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보은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부분이 계약과 인사가 아닌가 싶다. 물론 도움을 받았으면 감사한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은 구분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목포시는 지난 4월 주요 보직에 대한 인사를 먼저 단행했다. 비서실장과 인사팀장, 계약을 담당하는 회계과장, 계약팀장 등 9명을 인사 발령했다. 이후 12일자로 사무관급 이상 인사와 18일자로 6급 이하 인사를 단행했다.

하지만 인사와 관련해 보은과 측근 개입, 보복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5급 승진결정에서 특정 직렬의 지나친 배려와 보은 논란 등이 일었다.

5급과 6급 전보인사에서는 보복인사, 과 사무팀장과 선출 부서 등에 경력이 적은 동사무소 팀장(사무장) 전보 등으로 인사철학과 명확한 인사 기준이 없었다는 혹평도 나왔다.

오죽하면 7월에 강추위와 함께 폭설이 내렸다고 할까. 목포시의회 업무보고에서도 인사에 대한 지적성 발언이 나왔다.

주요 보직은 승진에서 아주 유리한 근무평정에서 더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 공무원이면 누구나 선호하는 부서다.

이와 함께 계약에서도 잡음이 일고 있다. 계약정보시스템에 누락·일부 내용 미공개 논란, 인사위원이 이사로 있는 회사에 수천만원에 이르는 2건의 수의계약, 또 다른 보은성 계약과 쟁개기 의심을 받는 계약, 계약전 선 시공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이러적으로 인사와 계약부서의 과장과 팀장을 먼저 발령해 인사를 하고 계약업무를 추진했는데도 잡음이 있는 것에 대해 시민들은 의심을 감추지 않고 있다.

본 기자가 취재수첩을 통해 여러 차례 말해 왔듯 공무원의 권한은 시민들이 공정 공평타당하게 집행하라고 위임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행정의 수장은 침묵효과와 멍(MUM) 효과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조직의 아래에서 위로 올라 갈수록 부정적인 정보는 걸러지고 긍정적인 정보만 전달되는 현상을 말한다.

사람은 자신에게 힘을 행사하는 사람에 대해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 보다는 그가 좋아하고 그에게 영합하는 말만 골라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 뒷사람의 기분을 거스르는 비판이나 충고, 평가절하의 내용들은 전달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민주당 텃밭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고 이번 선거에서 낙선한 민선 7기의 교훈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모든 일은 속도보다 방향이 필요하다.

행정은 시민들의 삶의 허기를 채워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 목포의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함께 갈 수 있는 이해와 배려로 통합의 행정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해남서 반려견과 캠핑 즐기세요”

27-28일 땅끝항토나라테마촌 1회차 진행...참가비 무료

해남군이 땅끝항토나라테마촌에서 반려견 가족과 함께하는 반려견캠핑 '겉'을 1박 2일 동안 진행한다.

반려견캠핑 행사는 전국 반려견 가족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인기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세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1회 캠핑은 오는 27-28일, 2-3회는 10월 중 개최 예정이다.

생태녹색관광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반려견캠핑 '겉'은 반려견과 견주가 함께 테마촌 숲속캠핑을 하고 생태탐방로, 해변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이번 행사는 해남코컬푸드를 활용한 강아지 수제 간식 만들기, 캠핑이와 추

억포토존에서 사진 찍기, 반려견 트레킹 등 반려견과 반려인이 함께 참가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반려 에티켓을 위한 멍멍이 서약서 작성하기, 멍멍이 자랑대회, 펫로스 키크스 등의 프로그램도 마련해 반려인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행사는 1일 과정과 1박 2일 과정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총 20여개 팀을 모집하며 반려견은 소형·대형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반려견 가족은 해남군 관광실 관광마케팅팀(061-530-5914)으로 문의하면 된다.



해남군이 오는 27-28일 땅끝항토나라테마촌에서 반려견 가족과 함께하는 반려견캠핑 '겉'을 개최한다. (해남군제공)

해남군 관계자는 "땅끝해남의 청정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해남=박필용 기자

영광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박차

군민 공청회 열여 다양한 의견 수렴

영광군은 15일 "최근 영광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협의체 위원, 사회복지지관, 군민 등 100여명을 초청해 제5기 영광군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을 위한 군민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용역 기관인 목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제5기 보장계획 수립(안) 보고를 시작으로 추진 경과 보고, 김동규 협의체 위원장을 좌장으로 한 전문가 6인의 종합토론, 군민 질의응답, 의견 수렴 순으로 이어졌다. 앞서 지

난 5월에는 착수보고회, 6월 FGI(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23-2026년)은 사회복지법 제35조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주민 욕구·자원 등 복지환경을 고려,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사회보장사업의 우선 순위 등을 결정하는 지역 단위 사회보장계획이다.

영광군은 공청회 후 중간보고회와 결과보고회, 의회에 보고 후 최종 성과를 9월 말까지 전남도로 제출할 예정이다. /본은진 기자



우승희 영암군수, 아파트 화재현장 방문

피해 주민 위로...“재발 방지 대책 마련”

영암군은 15일 "우승희 군수가 최근 삼호읍 아파트 화재현장을 방문해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다"고 밝혔다. <사진> 삼호읍 아파트 화재는 지난 11일 오후 10시 40분경 발생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1시간 만에 진화됐다.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는 외국인 500여명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호실 1개가 전소됐으나 외국인 50여명이 신속히 대피해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군은 유사한 화재사고를 막기 위해 관

계기관과 협의해 외국인 대상 화재 신고요령 교육, 화재대피 훈련 실시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승희 군수는 "갑작스러운 화재로 상심이 크겠지만 힘을 내길 바란다"며 "재난안전 예방책을 공고히 해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지사 061)278-0740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오치지사 261-9461
- 문흥지사 261-9462
- 일곡지사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평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사 944-0993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